



책의 날은 왜 4월 23일?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와 카탈루니아 Catalunya는 세계적인 출판도시로 유명하다. 특히 카탈루니아는 전 세계적으로 스페인어 출판물이 가장 많이 인쇄되는 도서출판의 중심지이다. 이 도시에서는 1926년부터 4월 23일을 '상트 호르디' 기념축일로 선정, 축제를 열어왔는데 이 축제의 전통은 남녀가 책과 장미를 주고받는 것이었다. 1995년 유네스코가 4월 23일을 '세계 책의 날'로 제정한 것은 이 축일과 연관이 있다. 출판도시로 유명한 카탈루니아의 축제모형을 참조한 것이다. 스페인에서 상트 호르디는 로마시대에 그리스도교를 받은 병사. 그러나 그는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서기 303년경 고문에 의해 사망해 카탈루니아 사람들은 그를 순교자이자 독립투쟁의 상징으로 받아들여 왔다.

책의 날이 4월 23일이 된 데는 세르반테스와 보다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바르셀로나 출판회의소가 1922년 《돈 키호테》의 저자 세르반테스의 탄생일을 기념하는 '스페인 책의 날'을 건의하기에 이르렀고, 당시 국왕인 알폰스 13세는 그 건의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세르반테스의 탄생일이 정확하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었다. 세르반테스의 탄생일이 10월 9일경으로만 짐작될 뿐 기록상 정확하지 않기 때문. 이런 점을 고려해 유네스코는 세계 책의 날을 탄생일로 할 것인가 서거일로 잡을 것인가에 대한 논쟁 끝에 서거일, 즉 4월 23일로 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역사적 배경과 함께 바르셀로나에서는 4월 23일을 전후해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카탈루니아 의회가 있는 자음 광장에서는 장미 장터와 퍼레이드가, 서민적인 거리로 유명한 람블라 Rambla에서는 책과 장미의 장터가 열린다. 카탈루니아 정부 궁도 이날은 장미 전시와 함께 궁을 개방해 시민들과 호흡을 함께한다. 책과 장미와 사람이 하나가 되어 지적 향취와 장미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축제의 날이 바로 4월 23일이다. **한민**



책의 날 행사에 많은 관심을 보인 독자들.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이 새 선물



홍보대사인 단편영화배우 유오성

책의 날 맞아 다양한 고객서비스

책 과 장 미 선 물

지난 4월 23일 세계 책의 날을 기념하여 4월 20일 전국 10개 대형 서점에서는 연인, 가족, 친구와 함께 오는 손님에게 책과 장미꽃을 선물했다. 300여 개 단행본 출판사 모임인 한국출판인회의가 책을, 서점이 장미꽃을 준비했다.

또한 책 나누기 운동의 일환으로 한국출판인회의가 전국의 청소년 복지시설에 500여 종 2만 5천여 권의 책을 기증하고, 어린이도서연구회는 전국의 소외지역 공부방에 책을 보냈으며, 중·고교 국어교사와 사서교사 모임인 '책다세'는 책의 날에 선물할 만한 책을 선정하여 홈페이지(www.rearead.co.kr)에 올려놓기도 했다.

KBS <TV 책을 말하다>도 세계 책의 날 기획 '책벌레, 책을 말하다' 편을 마련, 출판평론가 표정훈 씨, 전작주의자(著作主義者) 조희봉 씨, 개그맨 진유성 씨, 자유기고가 전여옥 씨의 책 이야기와 회사원·군인·주부 등 다독왕들의 책읽기에 대해 살폈다.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은 세계 책의 날을 맞아 문화관광부 전 직원에게 책과 장미꽃을 선물했다. 이 장관이 문화관광부 직원을 비롯 청사에 입주해 있는 직원들에게 선물한 책은 600여 권. 허만하 씨의 시집 <비는 수직으로 서서 죽는다>(솔), 고철상방 시인의 시집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미래사), 손택수 시인의 시집 <호랑이 발자국>(창작과비평사) 등 3종이었다.

영화배우 유오성이 '책의 날' 홍보대사 한편 영화배우 유오성이 2003 책의 날 홍보대사로 위촉돼 4월 20일 서울 교보문고에서 진행된 '책의 날' 행사에 참가했고 4월 23일에는 서울 강남 교보문고에서 열리는 단편집 <별> 출판기념 사인회에 참석, 독서 운동을 펼쳤다. ❦

